

간호대학생의 학업탄력성 설명 요인

배영주^{1*}, 박상연²

¹대구과학대학교 간호학과, ²경북대학교 간호대학

Study on Predictors of Academic Resilience in Nursing Students

Young Joo Bae^{1*} and Sang Youn Park²

¹Taegu Science University, Department of Nursing

²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연구로 2013년 3월 4일부터 8일까지 일개 광역시에 소재한 간호대학생 2학년 280명의 자료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ANOVA, Scheffe'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및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학업탄력성 정도는 3.67점, 문제해결능력 정도는 3.53점, 의사소통능력 정도는 3.50점이었고, 문제해결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학업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탄력성을 설명하는 요인은 계획실행, 해석능력, 목표설정능력, 원인분석, 수행평가로 학업탄력성을 50.7% 설명해 주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간호대학생의 학업탄력성의 설명요인을 고려한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factors affecting the academic resilience in nursing students. This study involved 280 second year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4 to 8 in 2013. Data were analyzed with frequency, ANOVA, Scheffe's test, pe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ith using SPSS version 20.0. The score of academic resilience, problem solving abilities and communication skill in nursing students were 3.67, 3.53 and 3.50 respectivel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higher problem solving abilities and communication skills, the higher academic resilience. The factors that significantly affected academic resilience were plan/practice, analytic ability, goal creation ability, cause analysis and performance/assessment accounting for 50.7% of the regression mode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description of nursing students' academic resilience factors to develop effective education program.

Key Words : Nursing Students, Academic Resilience, Problem solving abilities, Communication skill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한국간호평가원이 제시하는 간호사의 핵심역량에는 전공지식과 간호술의 통합적용 능력, 전문분야 간 의사소통과 협력 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리더십 능력 등이 있다. 이처럼 간호교육의 목표가 단순한 지식과 기술의 숙련자보다는 인간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건강관련 지식을 통합, 응용할 수 있는 실천적 간호전문인을 양성하는데

있다고 볼 때, 시험이나 암기위주의 획일적인 간호교육이 아니라 간호대학생의 특성이나 간호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간호교육방법의 변화가 요구되며[1], 간호대학생들의 탄력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들은 일반 대학생보다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숙련된 임상기술뿐만 아니라 임상에 적응하는 능력까지 요구되기 때문에 높은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고, 학업스트레스는 간호대학생들의 학업성취를 저하시키고 학교생활 및 전공에 대해 동기와 흥미를 감소시키게 된다[2].

*Corresponding Author : Young Joo Bae(Taegu Science Univ.)

Tel: +82-10-2542-4390 email: yjbae@tsu.ac.kr

Received January 24, 2014

Revised February 24, 2014

Accepted March 6, 2014

비교적 최근의 심리학적 개념인 학업탄력성(academic resilience)은 역경의 상황에서도 학업 성취가 높고, 학교 생활에 대해 높은 동기와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학교 내 규범을 성실하게 따르는 능력을 의미한다. 즉, 공부의 실패나 스트레스, 공부에 대한 압력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뜻하며 학업탄력성은 높은 학업성취나 성적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성공과 그 이후에 직업영역에서의 성취에 긍정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복합적인 자질과 능력도 포함한다. 학업탄력성은 학업 요소인 ‘학습조절’ ‘과제책임감’ 심리적 요소인 ‘자기통제’ ‘긍정적 태도’ 사회적 요소인 ‘친구지지’ ‘부모지지’ 등의 하위요인으로 설명되어진다[3]. 학업탄력성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성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적응과 학업탄력성을 분석한 박진영(2010)[4]의 연구, 피학대아동의 학업탄력성과 학교폭력을 연구한 김지연(2009)[5]의 연구 및 청소년 학업탄력성 척도를 개발한 오현경과 김성희(2012)[6]의 연구 등이 있다. 그러나, 간호학에서는 바이오퍼드백 훈련을 한 간호대학생의 학업탄력성이 증가한다는 권려화(2012)[7]의 연구가 유일하여 전반적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시대의 요구에 맞는 간호교육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간호대학생들의 학업탄력성 정도와 설명요인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학업성취도 및 학습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해결능력[8, 9] 현재 상태와 도달해야 할 목표사이의 차이를 인식하여 신속하게 해결하는 지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으로[10] 문제 명료화, 원인분석, 대안개발, 계획/실행, 수행평가 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11]. 이러한 하위요인들은 간호역량을 높이기 위한 간호교육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으로 전문직 간호사는 대상자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건강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시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문제해결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12]. 그러나, 간호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인의 정도를 파악하고 학업탄력성을 설명하는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인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의사소통능력이란 의사소통과정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확히 전달하는 능력으로 원활한 의사소통능력을 통해 자신의 존재 뿐만 아니라 타인을 이해해 나갈 수 있다.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 요인으로는 해석능력, 역할수행능력, 자기제시능력, 목표설정능력, 메시지전환능력의 총 5개 능력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능력들은 학업을 수행하는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11]. 또한, 전문직 간호사가 되기 위해 교육을 받는 간호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능력이며, 간호교

육기관에서는 의사소통능력이 강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12,13].

이에 본 연구는 학업탄력성의 설명요인을 고려하여 간호대학생의 학업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학업탄력성,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탄력성,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학업탄력성,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의 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학업탄력성 설명 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탄력성, 문제해결능력 및 의사소통능력 정도를 파악하고, 학업탄력성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개 광역시에 있는 일개 전문대학 간호학과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 지정’ 첫 번째 입학생이자 교과과정상 전공영역의 비율이 높아지는 때인 2학년 전체학생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연구 대상자는 연구목적, 익명성의 보장, 연구 참여자로서의 권리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280명을 편의 표집하였다. G power 3.1의 공식에 의하여, 검정력 .95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20으로 하여 일원분산분석, 상관관계와 회귀분석에 필요한 최대 표본수가 255명이 요구되어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최소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학업탄력성

학업탄력성 측정도구는 김누리(2008)[3]가 개발한 학업탄력성 검사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학습조절, 친구지지, 자기통제, 긍정적 태도, 과제책임감, 부모지지 등의 6개 하위요소들로 구분되어지며 전체 29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척도로 측정되며,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29점에서 16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각 하위영역별 Cronbach's α 는 .78~.72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각 하위영역별 Cronbach's α 는 .62~.83이었으며, 본 도구의 전체 Cronbach's α 는 .90이었다.

2.3.2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 측정도구는 이석재 등(2003)[11]이 개발한 생애능력 측정도구 중 대학생/성인용 문제 해결능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문제 명료화, 원인분석, 대안개발, 계획/실행, 수행평가의 총 5개요인과 9개 하위구성요소(문제인식, 정보수집, 분석능력, 확산적사고, 의사결정, 기획력, 실행과 모험 감수, 평가, 피드백), 총 45문항으로 구성 되어있다. 각 문항은 '매우 드물게' 1점에서 '매우 자주' 5점의 Likert척도로 측정되며,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45점에서 22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되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94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각 하위영역별 Cronbach's α 는 .68~.83이었으며 본 도구의 전체 Cronbach's α 는 .92이었다.

2.3.3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 측정도구는 이석재 등(2003)[11]이 대학생/성인용으로 개발한 의사소통능력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해석능력, 역할수행능력, 자기제시능력, 목표설정능력, 메시지 전환능력의 총 5개 능력요소로 구성되고, 이는 다시 7개 하위요소로 구분되어 있다. 능력요소별 하위요소는 해석능력-정보수집, 경청, 역할수행능력-고정관념적 사고극복, 창의적/개방적 의사소통, 자기제시능력-자기 드러내기, 목표설정능력-주도적 의사소통, 메시지 전환능력-타인관점 이해로 각각 7문항씩 총 4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13개 문항은 응답의 편중을 감소시키기 위해 부정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매우 드물게' 1점에서 '매우 자주' 5점의 Likert척도로 측정되며,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49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80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각 하위영역별 Cronbach's α 는 .59~.77이었으며, 본 도구의 전체 Cronbach's α 는 .86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자료 수집은 1학기 수업 첫 주인 2013년 3월 4일에서 8일까지 하였다. 자료조사 현재 시점에서 교과과정 상 전공과목의 비율이 높아지는 2학년 학생들에게 연구자가

연구목적, 익명성의 보장, 연구 참여자로서의 권리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2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강의실에서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게 한 후 곧바로 회수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15분~20분 정도였으며, 연구 대상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2.5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로 구하였다.
- 대상자의 학업탄력성,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수준은 평균 및 표준편차로 구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탄력성,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증은 Scheffe검증을 하였다.
- 대상자의 학업탄력성과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학업탄력성 설명 변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학업탄력성,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수준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간호학과 지원 동기, 전공만족도, 대학생활만족도를 보았다. 간호학과 지원 동기는 '취업이 잘되어서'가 38.9%로 가장 많았고, 전공만족도는 '높다'가 47.5%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생활만족도는 '보통이다'가 54.3%로 가장 많았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80)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
Reason for application	Should work well	109	38.9
	The recommendation to close	73	26.1
	Aptitude beaten	98	35.0
Satisfaction of major	Very high	32	11.4
	High	133	47.5
	Usually	107	38.2
	Lower	8	2.9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Very high	9	3.2
	High	97	34.6
	Usually	152	54.3
	Lower	22	7.9

3.2 대상자의 학업탄력성,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수준

대상자의 학업탄력성은 5점 만점에 평균평점 3.67점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소에서 학습조절 3.43점, 자기통제 3.78점, 친구지지 3.82점, 부모지지 3.57점, 긍정적 태도 3.77점, 과제책임감 3.60점으로 나타나 친구지지가 가장 높았다. 문제해결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평점 3.53점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소에서 문제명료화 3.72점, 원인분석 3.57점, 대안개발 3.43점, 계획실행 3.40점, 수행평가 3.61점으로 나타나 문제명료화가 가장 높았다. 의사소통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평점 3.50점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소에서 해석능력 3.67점, 역할수행능력 3.52점, 자기제시능력 3.37점, 목표설정능력 3.24점, 메시지전환능력 3.50점으로 나타나 해석능력이 가장 높았다[Table 2].

[Table 2] The level of academic resilience, problem solving abilities and communication skill (N=280)

Variables	Classification	Mini	Maxi	Mean±SD
Academic resilience	Learning regulation	1.80	5.00	3.43±.70
	Self control	1.60	5.00	3.78±.67
	Peer supporting	1.83	5.00	3.82±.50
	Parents supporting	1.40	5.00	3.57±.64
	Positive attitude	2.50	5.00	3.77±.59
	Task responsibility	1.50	5.00	3.60±.80
	Total	2.34	4.97	3.67±.46
problem solving abilities	Issue specification	2.20	5.00	3.72±.51
	Cause analysis	2.60	4.60	3.57±.40
	Counter proposal development	2.20	4.80	3.43±.44
	Plan / practice	1.90	4.90	3.40±.56
	Performanc/ assessment	2.30	5.00	3.61±.50
	Total	2.58	4.58	3.53±.37
communi-ca tion skill	Analytic ability	2.64	4.71	3.67±.37
	Role duty	2.71	4.36	3.52±.33
	Self-presentation ability	1.71	5.00	3.37±.60
	Goal creation ability	1.43	5.00	3.24±.60
	Message conversion ability	1.71	5.00	3.47±.52
	Total	2.67	4.59	3.50±.31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탄력성,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탄력성은 간호학과 지원동기(F=13.66, p<.001), 전공만족도(F=19.33, p<.001), 대학생활만족도(F=18.02,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간호학과 지원동기에서는 ‘적성에 맞아서’가 ‘취업이 잘되어서’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만족도에서는 ‘매우 높다’ ‘높다’가 ‘보통이다’ ‘낮다’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해결능력은 간호학과 지원동기(F=8.80, p<.001), 전공만족도(F=12.64, p<.001), 대학생활만족도(F=6.95,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간호학과 지원동기에서는 ‘적성에 맞아서’가 ‘취업이 잘되어서’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만족도에서는 ‘매우 높다’, ‘높다’가 ‘보통이다’, ‘낮다’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은 간호학과 지원동기(F=9.41, p<.001), 전공만족도(F=9.77, p<.001), 대학생활만족도(F=9.95,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간호학과 지원동기에서는 ‘적성에 맞아서’가 ‘취업이 잘되어서’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만족도에서는 ‘매우 높다’, ‘높다’가 ‘보통이다’, ‘낮다’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able 3].

3.4 대상자의 학업탄력성과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간의 관계

대상자의 학업탄력성과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학업탄력성과 문제해결능력은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었다(r=.682, p<.000).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인 중 문제명료화(r=.470, p<.000), 원인분석(r=.445, p<.000), 대안개발(r=.538, p<.000), 계획

[Table 3] Academic resilience, problem solving abilities and communication skill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80)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Academic resilience		Problem solving abilities			Communication skill			
		Mean±SD	F(p)	Scheffe	Mean±SD	F(p)	Scheffe	Mean±SD	F(p)	Scheffe
Reason for application	Should work well ^a	3.48±.41	13.66	c>a	3.46±.32	8.80	c>a,b	3.43±.28	9.41	c>a,b
	The recommendation to close ^b	3.54±.48	(<.001)		3.46±.38	(<.001)		3.45±.33	(<.001)	
	Aptitude beaten ^c	3.58±.46			3.65±.39			3.56±.30		
Satisfaction of major	Very high ^a	3.98±.46	19.33	a,b>c,d	3.73±.43	12.64	a,b>c,d	3.69±.36	9.77	a,b>c,d
	High ^b	3.77±.40	(<.001)		3.59±.36	(<.001)		3.53±.29	(<.001)	
	Usually ^c	3.47±.43			3.41±.33			3.41±.29		
	Lower ^d	3.25±.35			3.12±.18			3.25±.18		
Satisfaction of college life	Very high ^a	4.08±.41	18.02	a,b>c,d	3.70±.22	6.95	a,b>c,d	3.81±.27	9.95	a,b>c,d
	High ^b	3.85±.41	(<.001)		3.63±.40	(<.001)		3.56±.31	(<.001)	
	Usually ^c	3.59±.42			3.47±.35			3.46±.29		
	Lower ^d	3.24±.49			3.33±.31			3.28±.26		

[Table 4] Correlation between Academic resilience, problem solving abilities and communication skill (N=280)

Variables	Academic resilience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r(p)	r(p)	r(p)	r(p)	r(p)	r(p)	r(p)	r(p)	r(p)	r(p)	r(p)
Academic resilience	1.000										
Problem solving abilities	.682** (<.001)										
Issue specification (x1)	.470** (<.001)	1.000									
Cause analysis (x2)	.445** (<.001)	.481** (<.001)	1.000								
Counter proposal development (x3)	.538** (<.001)	.521** (<.001)	.426** (<.001)	1.000							
Plan / Practice (x4)	.597** (<.001)	.511** (<.001)	.367** (<.001)	.618** (<.001)	1.000						
Performance / Assessment (x5)	.565** (<.001)	.459** (<.001)	.460** (<.001)	.616** (<.001)	.565** (<.001)	1.000					
Communication skill	.604** (<.001)										
Analytic ability (x6)	.510** (<.001)	.409** (<.001)	.463** (<.001)	.522** (<.001)	.364** (<.001)	.529** (<.001)	1.000				
Role duty (x7)	.206** (<.001)	.278** (<.001)	.142** (<.001)	.304** (<.001)	.226** (<.001)	.273** (<.001)	.330** (<.001)	1.000			
Self-presentation ability (x8)	.403** (<.001)	.207** (<.001)	.299** (<.001)	.314** (<.001)	.291** (<.001)	.392** (<.001)	.350** (<.001)	.606 (.314)	1.000		
Goal creation ability (x9)	.536** (<.001)	.343** (<.001)	.265** (<.001)	.519** (<.001)	.480** (<.001)	.499** (<.001)	.505** (<.001)	.249** (<.001)	.562** (<.001)	1.000	
Message conversion ability (x10)	.439** (<.001)	.444** (<.001)	.376** (<.001)	.495** (<.001)	.405** (<.001)	.465** (<.001)	.508** (<.001)	.232** (<.001)	.249** (<.001)	.416** (<.001)	1.000

실행($r=.597, p<.000$), 수행평가($r=.565, p<.000$)와도 모두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었다. 학업탄력성과 의사소통능력은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었다($r=.604, p<.000$). 의사소통능력의 하위요인인 해석능력($r=.510, p<.000$), 역할수행능력($r=.206, p<.000$), 자기제시능력($r=.403, p<.000$), 목표설정능력($r=.536, p<.000$), 메시지전환능력($r=.439, p<.000$)과도 모두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었다.

3.5 대상자의 학업탄력성 설명 변인

대상자의 학업탄력성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문제해결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의 하위요인들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이들 예측변인들은 학업탄력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어($r=.206 \sim .682, p<.001$) 예측변인으로서의 투입조건이 되었다. 단

계선택법(stepwise)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회귀분석 가정의 만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 잔차값을 구하였다. 이들 예측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는 .207에서 .618로 .80이상인 설명변수가 없어 예측변수들이 독립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가 .52에서 .70로 모두 0.1이상 1.0 이하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요인(VIF)도 1.42에서 1.70으로 모두 10을 넘지 않아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후 잔차분석을 위해 Dubin-Watson 검정을 실시한 결과, Dubin-Watson 값이 1.923으로 오차항 간의 체계적인 상관성이 없었으며, 오차항의 정규 분포를 검정할 수 있어서 설정한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상자의 학업탄력성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은 계획/실행($\beta =.313, p<.001$), 해석능력($\beta =.155, p=.005$), 목표

[Table 5] Predictors of Academic resilience (N=280)

	B	SE	β	t	p	Adj R ²	F	VIF	Dubin-Watson
constant	.537	.217		2.473	.014				
Plan / Practice	.259	.044	.313	5.840	<.001	.354	58.317	1.626	1.923
Analytic ability	.193	.068	.155	2.832	.005	.451		1.704	
Goal creation ability	.153	.041	.200	3.739	<.001	.479		1.616	
Cause analysis	.163	.058	.140	2.803	.005	.498		1.420	
Performanc / Assessment	.129	.053	.141	2.414	.016	.507		1.930	

설정능력($\beta = .200, p < .001$), 원인분석($\beta = .140, p = .005$), 수행평가($\beta = .141, p = .016$)이었다. 이들 변인은 간호대학생의 학업탄력성을 50.7% 설명하였으며, 이 중 학업탄력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계획/실행이었다[Table 5].

4. 고찰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탄력성, 문제해결능력 및 의사소통능력의 정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성공적인 학업성취 및 대학생활의 적응에 필수적 요소인 학업탄력성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을 파악하여, 학업탄력성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학업탄력성 수준은 평균평점 3.67점으로 바이오퍼드백 훈련을 받은 간호대학생 4학년의 학업탄력성 평균평점 3.16점보다 높은 수준이었다[6]. 본 연구 대상자가 2학년 학생임을 고려해 볼 때 국가고시를 앞둔 4학년 학생들이 학업스트레스를 더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학업탄력성의 하위요소 중 ‘친구 지지’가 3.8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친구와 같은 ‘중요한 타인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학습자의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형성과 높은 학업적 성취를 보여준다는 김경주 등(2012)의 연구[14]와 탄력성은 개인을 내·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인식하여 개인이 저절로 탄력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도움과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홍은숙(2006)의 연구[15] 결과와도 유사하다. 그러므로 간호교육기관에서는 간호대학생의 학업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생 개개인의 내·외적 자원 뿐 아니라,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고 있는 간호학생들이 서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학습전략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문제해결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평점 3.53점으로 나타났는데, 간호학과 1·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은주 등(2013)의 연구[13]에서는 3.44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 대상자의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소로는 문제명료화가 가장 높았고, 계획실행이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문제해결능력정도를 파악한 연구들[13, 16]과 유사하다. 청소년 후기과정에 속해 있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다양한 문제상황의 경험이 부족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각각의 단계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16] 다른 하위요소에 비해 점수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해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학습전략의 모색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평점 3.50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은주 등(2013)[13]의 연구결과인 3.51점과 비슷하고, 이지윤 등(2013)[17]의 연구결과인 3.3점보다는 높았으며, 육군 군인들의 의사소통능력을 연구한 김선아 등(2011)[18]의 연구결과인 3.48점과 유사하다. 육군 군인들과 의사소통능력의 평균평점이 비슷한 것은 대상자의 나이가 대부분 20세~21세로 소위 신세대로 의사 표현에 큰 어려움이 없고, 2학년 재학생인 간호대학생들과 같은 또래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보건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안양희 등(2011)[19]의 연구결과인 3.7점 보다는 본 연구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이 낮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현장에서 환자 및 의료진들과 풍부하고 활발한 의사소통의 경험이 많은 보건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의사소통능력의 하위요소로는 해석능력이 가장 높고 목표설정능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은주 등(2013)의 연구[13]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목표설정능력 향상에 초점을 둔 다양한 수업방법을 도입하여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탄력성,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업탄력성은 ‘적성에 맞아서’ 간호학과를 지원한 경우와 전공과 대학생활에 만족하는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탄력성이 증가하면 학업스트레스의 영향력이 감소하여 학업에 대한 긍정적 적응이 이루어진다는 선행연구[3, 7]를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업탄력성과 간호학을 바탕으로 한 대학생활 전반적인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해결능력은 ‘적성에 맞아서’ 간호학과를 지원한 경우와 전공과 대학생활에 만족하는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문제해결능력과 전공만족도를 살펴 본 장희정과 곽윤경의 연구(2003)[1]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은 ‘적성에 맞아서’ 간호학과를 지원한 경우와 전공과 대학생활에 만족하는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다. 간호대학생이 전공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에 만족하지 않은 경우보다 의사소통능력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온 연구[13, 17]결과를 지지한다. 이는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학업성취나 교내실습 및 임상실습과도 연관되어 있고, 임상실습에서 환자나 병원종사자들과의 의사소통이 중요함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간호대학생의 학업탄력성,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의 상관관계는 모두 순상관관계를 보여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학업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관계는 대학생용 학업탄력성 도구개발을 한 선행연구[3]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 문제해결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의 상관관계는 순상관관계를 보였다. 해결중심 의사소통 훈련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이 증진되었다는 연구[20]와 문제해결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의 순상관관계를 보인 지은주[13]의 결과와 동일하였다.

간호대학생의 학업탄력성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을 파악 결과, 주요 설명변인은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인인 원인분석, 계획수행, 수행평가와 의사소통능력의 하위요인인 해석능력, 목표설정능력이었으며, 이들 변인의 학업탄력성에 대한 설명력은 50.7%이었다. 이 중 간호대학생의 학업탄력성에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인은 계획실행으로 35.4%의 설명력을 보였다. 계획실행요인이 학업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인 중 계획실행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것을 고려해 볼 때, 간호대학생들이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은 충분한데 비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능력은 부족하므로[13],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학업탄력성을 계획실행요인을 증가시킬 수 있는 실천적인 학업전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학업탄력성을 설명하는 다른 변인들은 모두 간호사 핵심역량을 갖춘 학생을 배출 할 수 있도록 한 간호교육인증평가의 기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간호 상황에 적합한 간호과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황을 해석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수행평가 하여야 한다. 학업탄력성을 설명하고 있는 이러한 변인들을 고려한 다양한 간호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탄력성, 문제해결능력 및 의사소통능력 정도를 파악하고, 학업탄력성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의 대상자는 일개 광역시에 소재한 일개 대학 간호학과 재학생 중 2학년 28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3월 4일에서 8일까지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학업탄력성 정도는 5점 만점에 3.67점이었고, 하위요소 중 친구지지가 3.7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문제해결능력은 5점 만점에 3.53점이었으며, 의사소통능력은 5점 만점에 3.50점이었다. 문제

해결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학업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탄력성을 설명하는 요인은 계획실행, 해석능력, 목표설정능력, 원인분석, 수행평가로 나타났고 계획실행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의 학업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간호교육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며 더욱이 문제해결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의 하위요인들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는 것이 학업탄력성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모든 간호대학생에게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상자의 표본수를 확대하여 연구해 볼 것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 및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References

- [1] H. J. Jang, Y. K. Kwag, "Affecting Factors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9), p.4380-4387, 2013.
- [2] H. J. Choi, E. J. Lee, "Mediation Effects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in First Year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19(2), p.261-268, 2012.
DOI: <http://dx.doi.org/10.7739/jkafn.2012.19.2.261>
- [3] N. R. Kim,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ity of the Scale of Academic Resili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2008.
- [4] J. Y. Park, "A Study on the Academic Resilience and the University Life Adaptation of Non-traditional Student", *The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16(4) p.1-29, 2010.
- [5] J. Y. Kim, "The Effectiveness of Academic Resilience to School Violence and Delinquency of children Experiencing Family Violence : Focusing on the comparison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30. p.71-96. 2009.
- [6] H. K. Oh, S. H. Kim,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Youth Academic Resilience Scale",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9(1), p.47-63, 2012.

[7] L. H. Quan, "The effects of biofeedback training on stress and academic resilience of the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Seoul, 2012.

[8] S. Y. Chang, N. R. Kim, "The relationships of Problem solving ability, Learning strategies,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School achievement in the Learning community of majored engineering", *The Korean Association for Educational Methodology*, 25(3), p.581-602, 2013.

[9] H. J. Lee, S. K. Jung, M. J. Kim, "The Effects of Healthcare Major Students' Educational Achievement on Life Competencies",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6(2), p.62-71, 2013.

[10] S. Y. Ju, Y. H. Le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Resilience Scale for Adolescents(RSA)"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4), p.103-139. 2011.

[11] S. J. Lee, Y. K. Chang, H. N. Lee, K. Y. Park,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fe-skills :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2003-15-3",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Seoul, 2003.

[12] G. S. Jeong, K. A. Kim, J. A. Seong, "The Effect of Learning Style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Communication Skill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3), p.413-422, 2013.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3.413>

[13] E. J. Ji, M. R. Bang, H. J. Jeon, "Ego Resilience, Communication Ability and Problem-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4), p.571-579, 2013.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4.571>

[14] G. J. Kim, K. H. Kim, K. S. Park, "The Structural Analysis of Relations among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 Level and Academic Self-Efficacy Affecting Academic Achievement of Provincial College Student", *Theory and practice of Education*, 17(2), p.1-25, 2012.

[15] E. S. Hong, "Conceptual Understanding of Resilience and Instructional Suggestion",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41(2), p.45-67. 2006.

[16] Y. S. Park, Y. H. Kwon, "Ego Resilience, Problem Solving Process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3), p.341-350. 2013.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3.341>

[17] J. Y. Lee, Y. M. Lee, S. Y. Park, M. J. Lee, Y. H. Jung, "Original Articles : Effec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Emotional Regulation, Perceived Stress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4), p.606-616, 2013.

[18] S. H. Kim, H. L. Kim, C. H. Woo, S. I. Park, R. Keum, "Communication Abilitie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xiety, and Depression in Korean Soldier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0(1), p.81-90, 2011.

[19] Y. H. Ahn, E. K. Keon, E. S. Choi, E. J. Gu, "Effects of Competency Level in Communication on Professional Competence of Public Health Nurse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5(2), p.233-243, 2011.

[20] H. M. Kim, "The Effect of The Solution-Focused Communication Training on The Problem Solving Abi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18(4), p.399-408, 2009.

배 영 주(Young Joo Bae)

[정회원]



- 2004년 8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10년 8월 : 경북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수료)
- 2012년 3월 ~ 현재 : 대구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기본간호, 간호교육, 간호상담

박 상 연(Sang Youn Park)

[정회원]



- 198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1994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1974년 12월 ~ 현재 :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만성질환, 보완대체, 성인간호